

# 보 도 자 료

##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성료 전국 311개 박물관·미술관과 함께한 문화 축제

즐기고, 거닐고, 만나며 함께한 한 달 ... 3대 대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 뜨거운 호응과 호평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을 하나로 연결한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한국박물관협회(회장 조한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지난 5월 1일(금)부터 31일(일)까지 한 달간 추진했으며, 전국 311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한 가운데 세대와 지역, 계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Museums Uniting a Divided World)'을 주제로 진행된 올해 주간은 세대·계층·지역을 연결하는 문화적 매개체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며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는 소통과 포용의 공간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으며, <뮤지엄×즐기다>, <뮤지엄×거닐다>, <뮤지엄×만나다> 등 3대 대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특별전시·로컬 여행·소장품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운영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뮤지엄×즐기다>는 전시·교육·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공모·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박물관·미술관의 핵심 기능인 연구와 해석을 바탕으로 소장품 및 예술작품에 담긴 숨겨진 가치를 발굴·재조명하고 이를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 관람객이 쉽고 흥미롭게 문화 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는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Museums Uniting a Divided World)'을 주제로 전국 18개 기관에서 16개의 특별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돼 운영됐으며, 박물관·미술관별로 특화된 소재와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전시·체험·워크숍·공연 등을 선보였다. 박물관·미술관을 단순히 관람하는 공간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문화공간으로 확장한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26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뮤지엄×즐기다」  
소다미술관 ©한국박물관협회



2026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뮤지엄×즐기다」  
한양대학교박물관 ©한국박물관협회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과 문화 명소를 연결한 로컬 뮤지엄 여행 프로그램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향유 기회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각 지역의 역사·건축·예술문화 자원을 깊이 있게 탐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문화자원을 재발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여행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는 기존 경주·제주 코스에 서울·공주 코스를 새롭게 추가해 총 4개 지역에서 12회 운영됐으며, 2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 각 지역만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방문이 어려웠던 지역 기관들을 연계해 이동성을 강화하고 전문 해설사의 깊이 있는 해설을 더해 관람객의 문화적 관심과 호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참가자의 만족도 및 재참가 의사가 98%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2026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뮤지엄×거닐다」 공주  
 ©한국박물관협회

〈뮤지엄×만나다〉는 전국 50개 박물관·미술관의 대표 소장품 50점을 조명하며 '최초, 그리고 시작'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개 기관이 각 소장품을 중심으로 교육·체험·특별전시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관람객이 소장품에 담긴 역사적·과학적·문화적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박물관·미술관을 만나는 경험을 제공했다. 내년에는 각 소장품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를 더욱 깊이 발굴해 강연·체험·전시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유물과 작품의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서사와 사회적 맥락을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해 소장품에 담긴 이야기를 더욱 깊이 전할 계획이다.



2026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뮤지엄×만나다」 경기도자미술관  
 ©한국박물관협회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홍보대사로 참여한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는 “전국의 다양한 박물관·미술관을 직접 다니며 몰랐던 전시와 공간을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꼈다”며 “작품과 유물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 큰 위로와 힐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아 관람객들과 직접 만나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어졌다. 지난 5월 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팝업부스를 운영하며 스타트존·게임존·체험존·굿즈&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약 1,600여 명의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뮤지엄×만나다〉 소장품 카드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당초 예정된 기간을 넘어 오는 7월 20일(월)까지 연장 운영되며, 아직 참여하지 못한 관람객들에게도 특별한 뮤지엄 순간을 소장품 카드와 함께 남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박물관협회 조한희 회장은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큰 문화축제이자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특별한 기간”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박물관·미술관을 가까이하고 일상 속에서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박물관·미술관이 특정한 날에만 찾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에게는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우는 배움의 공간,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함께 시간을 나누는 쉼의 공간, 지역사회에는 서로를 이어주는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뮤지엄×즐기다〉와 〈뮤지엄×만나다〉 등 일부 프로그램은 5월 이후에도 8월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뮤지엄위크.kr)과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포스터 ©한국박물관협회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 (주간기간) 2026. 5. 1.(금) ~ 5. 31.(일), 31일간
  - (개막식) 2026. 5. 4.(월) 14:00, 모란미술관
  - (세부프로그램 운영) 주간 기간 포함 최대 3개월 내외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 (주관) (사)한국박물관협회
- (주제)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 (Museums Uniting a divided world)
- (추진 목적)
  - 주간 내 전국 단위의 다양한 행사 운영을 통해, 국민 생활 속 박물관·미술관 인식 확산 및 문화의 일상화 실현
  - 박물관·미술관 정체성에 기반한 참신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및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도모
  - 박물관·미술관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위상 강화
- (추진 방향)
  - (2026년 ICOM 주제 연계) ICOM 주제인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Museums uniting a divided world)’ 를 반영하여 전 세계적 박물관 트렌드와 보조를 맞춘 시의적절한 주제로 운영
  -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기획 및 운영
  - (지역 정체성 제고) 각 박물관·미술관을 거점으로 지역 내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활용한 콘텐츠 개발하여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 (특화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각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소장품, 특화전시, 지역성 등)을 반영한 특화 콘텐츠 및 실험적인 신규 콘텐츠 개발
- (주요 프로그램)
  - (「뮤지엄×즐기다」, 18개관 16개 프로그램)
  - (「뮤지엄×거닐다」, 4개 지역 12회차)
  - (「뮤지엄×만나다」, 50개관 50개 소장품)

**<주요 실적('23~'25년)>**

구 분	'23년	'24년	'25년
참여관 수	298개관	335개관	361개관
향유자 수	1,018,264명	857,676명	1,330,261명

1 「뮤지엄×즐기다」(18개관, 16개 사업)

「뮤지엄×즐기다」 실험적 방식의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뮤지엄x즐기다는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을 주제로 한 창의적 전시, 교육·체험, 워크숍,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16개의 프로그램이다.

□ '뮤지엄×즐기다', 전국 18개 기관 16개 프로그램 선정... 특별전시·체험 풍성

'뮤지엄×즐기다'는 전시·교육·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공모·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전국 18개 기관, 16개 특별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되어 풍성한 문화 경험을 선사한 바 있다. 박물관·미술관의 핵심 기능인 '연구'와 '해석'을 바탕으로 소장품 및 예술작품에 담긴 숨겨진 가치를 발굴·재조명하고, 이를 대중의 언어로 풀어냄으로써 관람객이 쉽고 흥미롭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창의적 기획력을 토대로 실험적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에서의 새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하였다.

참여 기관들은 특별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이 단순한 소장·보존의 공간을 넘어,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대립을 연대의 서사로 전환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모란미술관의 《침묵과 빛 사이》, 코리아나미술관의 《모두를 위한 감각 식탁》, 헬로우뮤지엄의 《뮤지엄 다이어리》 등 각 기관의 차별화된 기획은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화합의 이정표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특히, 모란미술관(경기 남양주)의 《침묵과 빛 사이: Between Silence & Light》는 전통 사찰 공간을 배경으로 장애·비장애·젠더·디아스포라 작가의 비정형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였다.

5월에는 개성 넘치는 전시들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한양대학교박물관(서울 성동구)의 《물힌 그릇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쓰임, 폐기, 그리고 다시 불려진 것들》은 행당동 주거지 유적의 도자기부터 오늘날의 폐기 도자까지 4개의 섹션으로 구성하여 물건의 생애와 재생의 서사를 탐구하였다. 교동미술관(전북 전주)은 《유연한 공간 : 공동의 숨(Flexible Space : Breathing Together)》을 통해 한지를 매개로 장인과 청년예술가가 협업한 공동 전시를 선보였다. 사비나미술관(서울)은 5월 한 달간 《Still Breathing: 아직 숨 쉬고 있다》를 개최하며, 아픈 동물의 초상·다큐·AI 영상 체험과 동물원 재활 및 도시 습지를 연계해 동물복지를 사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소담미술관(경기 화성)은 《모두의 성장소설 : The Coming of us》를 통해 이주배경·내국인 청소년이 함께 만든 공동의 서사를 다국어 오디오 가이드로 전달하는 참여형 전시를 진행하였으며,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경북 경산)은 《상식이 된 파격 - 그때는 힙스터, 지금은 끈대》를 통해 세대 간 가치의 대비를 드러내는 역사 유물을 흑백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지역 밀착형 전시도 풍성하게 마련되었다. 김만덕기념관(제주)은 《물길을 따라, 사람길을 잇다》를 통해 산지천 길을 직접 걸으며 원도심 역사를 기록한 아카이브 자료를 감상하는 역사 체험형

전시를 진행하였다. 온양민속박물관(충남 아산)은 《박물관 안 수선집 IV '헌물과 선물'》을 운영하며, 지역 생활용품을 발굴·기록하고 지역 공예가와 주민이 직접 수선한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어린이·가족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었다. 코리아나미술관(서울)은 《모두를 위한 감각 식탁》을 통해 전시 작품을 기반으로 한 케이크 제작·웹 프로그램 체험·공동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경기 용인)은 《폭풍이 지나간 뒤, 다시 시작되는 숲》을 운영하여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전시 및 인형극 관람 후 재활용 재료로 숲을 만드는 체험활동을 제공하였다. 애니메이션박물관(강원 춘천)은 춘천인형극제와 협력하여 5월 중 《뉴트로 흥부와 놀부: 애니메이션×인형극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흥부와 놀부》 상영 후 대형 인형 퍼레이드·인형극 참여·컷아웃 애니메이션 제작 체험을 함께 선보였다. 의성조문국박물관(경북 의성)은 《조문국 시공간 미션 어드벤처》를 통해 박물관과 고분군 일대를 이동하며 AI 기반 미션을 수행하는 보물찾기와 유물 굿즈 제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맞이하였다. 우제길미술관(광주)은 우제길 작품을 모티브로 한 한지콜라주·아트백 만들기·협동 미술활동으로 구성된 《빛을 찾다 나를 보다》를 선보였으며, 종이나라박물관(서울)은 제주조랑말박물관과 연계하여 말 종이램프를 제작하고 점등식을 진행하는 《2026 세상을 잇는 '빛의 말' - 종이의 질주》를 운영하였다. 한국자연사박물관(충남 공주)은 박물관과 계룡산 자연 관찰 후 만화·디자인·도자 중 하나를 선택해 직접 창작하고 전시하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 자연을 잇고, 삶을 엮다》를, 헬로우뮤지움(서울)은 미술관 관람·신체놀이·서울숲 생태 체험 후 나만의 일기장을 제작하는 《뮤지엄다이러리》를 각각 5월 한 달간 진행하였다.

## □ 참여관 목록

### ○ 전시(총8개관)

NO.	기관명	지역	기간	전시명
1	교동미술관	전북 (전주시)	5.5 ~ 5.31	유연한 공간 : 공동의 숨 Flexible Space : Breathing Together
2	김만덕기념관 X(유)켈파트	제주 (제주시)	5.1 ~ 8.30	물길을 따라, 사람길을 잇다
3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경북 (경산시)	5.12 ~ 8.21	상식이 된 파격_그때는 힙스터 : 지금은 핀대
4	모란미술관	경기 (남양주시)	4.14 ~ 7.26	침묵과 빛 사이 Between Silence & Light
5	사비나미술관	서울 (은평구)	5.1 ~ 5.31	Still Breathing: 아직 숨 쉬고 있다
6	소다미술관	경기 (화성시)	5.6 ~ 7.19	모두의 성장소설 : The coming of us
7	온양민속박물관	충남 (아산시)	5.2 ~ 5.31	박물관 안 수선집 IV '헌물과선물'
8	한양대학교박물관	서울 (성동구)	5.6 ~ 7.18	물건 그릇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쓰임, 폐기, 그리고 다시 불려진 것들

## 1) 교동 미술관

- 전시명 : 유연한 공간 : 공동의 숨(Flexible Space : Breathing Together)
- 기간 : 2026. 5. 5. ~ 5. 31.
- 장소 : 교동미술관(전북 전주시)
- 내용 : 아카이브적 전환, 과정 중심 미학을 중심으로 전통과 예술의 원형에 대한 오마주적 시선, 동시대를 향한 겸허한 동행의 제스처를 건네는 《유연한 공간 : 공동의 숨 Flexible Space : Breathing Together》 전시는 미술관이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공감과 공동체적 연대를 이끄는 공공의 공간이자 공론장, 지식 생산의 공동 플랫폼으로 전시, 시각기반 콜렉티브, 공동 연구담론 창출등을 다각도로 전개한다.

## 2) 김만덕기념관 x (유)켈파트

- 전시명 : 물길을 따라, 사람길을 잇다
- 기간 : 2026. 5. 1. ~ 8. 30.
- 장소 : 김만덕 기념관(제주도 제주시)
- 내용 : 김만덕기념관은 2023년부터 조선시대 제주를 대표하는 거상 김만덕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제주항과 산지천을 중심으로, 제주의 상업활동과 유통 구조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물길을 따라, 사람길을 잇다》는 조선시대 거상 김만덕의 상업활동 배경지였던 산지천을 중심으로 현대 예술가들과 협업해 제주 원도심의 상업활동과 문화 예술 교류를 소개하는 전시로 김만덕이 ‘도전적인 경영정신’을 통해 육지와 제주를 이었듯 예술과 아카이브를 통해 공동체의 기억을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망을 재건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 3)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 전시명 : 상식이 된 파격\_그때는 힙스터 : 지금은 꼰대
- 기간 : 2026. 5.12 ~ 8.21
- 장소 :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본관 2층 기획전시실(경북 경산시)
- 내용 : 기성세대는 '꼰대'로 청년 세대는 '철없는 힙스터'로 서로를 규정하는 흑백논리로 단절되고 있는 세대 갈등에 대해, 갈등의 에너지를 부정적인 대립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긍정적 마찰'이자 '혁신의 과정'으로 재정의하며, 사고의 유연성을 환산하고자 한다. 오늘의 진부한 질서가 한때는 혁신의 상징이었듯, 지금의 '힙'한 문화 역시 미래에는 '꼰대'의 유산이 될지도 모른다. 《상식이 된 파격\_그때는 힙스터 : 지금은 꼰대》 전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힙스터'와 '꼰대' 사이를 절묘하게 오가는 다양한 문화적 코드들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는 시대의 시선을 새롭게 조명한다.

## 4) 모란미술관

- 전시명 : 침묵과 빛 사이(Between Silence & Light)
- 기간 : 2026. 4.14 ~ 7.26

- 장소 : 모란미술관(경기도 남양주시)
- 내용 : 《침묵과 빛 사이》 전시는 '있다'를 주제로 타인을 이해하며 편견과 불안을 넘어 통합과 관용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예술과 일상, 자연과 인공, 성과 속이 함께 하는 미술관 환경 안에서 차별과 혐오의 본질을 직시하고 분열된 세계를 일소하는 체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 5) 사비나미술관

- 전시명 : Still Breathing: 아직 숨 쉬고 있다
- 기간 : 2026. 5.1 ~ 5.31
- 장소 : 사비나미술관(서울시 은평구)
- 내용 : 《Still Breathing: 아직 숨 쉬고 있다》는 아픈 동물의 재활·치유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국내 최초의 현대미술·동물복지·지역생태·시민교육 융복합 전시이다. 고상우 작가의 푸른색 동물 초상 작품과 아픈 동물의 서사를 바탕으로 실험실·산업·야생·도시 생태 속에서 상처 입은 동물을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재위치시키며 이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인간 공동체의 치유 가능성을 모색한다.

## 6) 소다미술관

- 전시명 : 모두의 성장소설 : The coming of us
- 기간 : 2026. 5.6 ~ 7.19
- 장소 : 소다미술관(경기도 화성시)
- 내용 : 《모두의 성장소설 : The coming of us》는 관람객이 서사의 주인공이 되어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성찰하는 전시이다. '다문화'를 대상화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도입하여 세대와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전시는 견고했던 세계관에 틈을 내고, 그 틈 사이로 서로 다른 삶의 리듬을 섞어내며, 마침내 타인과 손을 맞잡아 이전과는 다른 우리로 거듭나는 4단계의 챕터 구성을 통해 관람객에게 단계별 인식 변화의 경험을 선사한다.

## 7) 온양민속박물관

- 전시명 : 박물관 안 수선집 IV '헌물과선물'
- 기간 : 2026. 5.2 ~ 5.31
- 장소 : 온양민속박물관(충남 아산시)
- 내용 : 충남지역 마을의 변화하는 생활양식 속에서 가재도구를 비롯한 다양한 일상의 물건들은 급격히 대체되고 있다. 우리의 과거를 비추는 물건들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 관계, 시대적 맥락을 담은 중요 문화자산으로 바라보고 기록과 보존의 필요를 바탕으로 이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박물관 안 수선집 IV '헌물과선물'》

물' 》는 아산, 예산, 홍성 충남 지역에서 사라져가는 지역 이야기를 소개하는 전시이다.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의 수선을 통해 쓰임과 기능을 재해석하고 단절되어 가는 마을의 이야기, 지역의 생활 문화를 기억으로 보존한다.

## 8) 한양대학교박물관

- 전시명: 힌 그릇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쓰임, 폐기, 그리고 다시 불려진 것들
- 기간 : 2026. 5.6 ~ 7.18
- 장소 : 한양대학교박물관(서울시 성동구)
- 내용 : 《힌 그릇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쓰임, 폐기, 그리고 다시 불려진 것들》는 서울 행당동 '주개장' 유적을 중심으로, 도자기가 사용·폐기·재맥락화되는 과정을 통해 '쓰레기'와 '유물'의 경계를 질문하는 전시이다. 집단적·제도적 판단에 의해 폐기된 근대 도시의 도자기, 개인의 기억 속에서 폐기가 유예된 생활 도자기, 오늘날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버려지는 도자기, 그리고 예술적 실천을 통해 다시 의미를 획득한 도자기라는 네 개의 층위를 통해, 같은 물질이 서로 다른 판단 아래 전혀 다른 운명을 갖게 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 ○ 교육(총8개관)

NO.	기관명	지역	기간	프로그램명
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 (용인시)	5.1 ~ 5.31	폭풍이 지나간 뒤, 다시 시작되는 숲
2	애니메이션박물관 X춘천인형극제	강원 (춘천시)	5.1 ~ 5.31	뉴트로 흥부와 놀부: 애니메이션 X 인형극 퍼레이드
3	우제길미술관	광주 (동구)	5.1 ~ 5.31	빛을 찾다 나를 보다
4	의성조문국박물관	경북 (의성군)	5.1 ~ 5.31	조문국 시공간 미션 어드벤처
5	종이나라박물관	서울 (중구)	5.1 ~ 5.31	세상을 잇는 '빛의 말' 종이의 질주
6	코리아나미술관	서울 (강남)	5.1 ~ 5.31	모두를 위한 감각 식탁
7	한국자연사박물관	충남 (공주시)	5.1 ~ 5.31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자연을 잇고, 삶을 엮다"
8	헬로우뮤지움	서울 (성동구)	5.1 ~ 5.31	뮤지엄 다이어리

### 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 프로그램명 : 폭풍이 지나간 뒤, 다시 시작되는 숲
- 장소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층 교육실(경기도 용인시)
- 프로그램 소개 : 폭풍이 지나간 뒤, 송이버섯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숲을 만들어요
- 프로그램 내용 : 구연 동화 감상, 미술 활동(숲 만들기)

## 2) 애니메이션박물관 x 춘천인형극제

- 프로그램명 : 뉴트로 흥부와 놀부: 애니메이션 x 인형극 퍼레이드
- 장소 : 애니메이션박물관(강원도 춘천시)
- 프로그램 소개 : 국내 최초 인형 애니메이션 상영부터 압도적인 대형 인형 퍼레이드까지, 내가 직접 인형극 주인공이 되어 연기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컷아웃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보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된다.
- 프로그램 내용 : 공연 및 체험 교육

[공연] <흥부와 놀부> 애니메이션 상영, 인형극 퍼포먼스 퍼레이드

[체험/교육] <나도 흥부와 놀부 인형극 주인공>, <흥부와 놀부, 종이에서 움직임으로 워크숍>

## 3) 우제길미술관

- 프로그램명 : 빛을 찾아 나를 보다
- 프로그램 소개 : 색면 추상의 대가 우제길 화백의 작품 세계에 나타나는 빛과 색의 조형적 요소를 바탕으로 참여자가 창작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각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표현을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미술 체험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 한지 콜라주 클래스, 나만의 아트백 만들기, 같이와 가치

## 4) 의성조문국박물관

- 프로그램명 : 조문국 시공간 미션 어드벤처
- 장소 : 의성조문국박물관(경북 의성군)
- 프로그램 소개 : 박물관이 보물찾기 놀이터로 변신! 가족과 함께 6개 미션을 풀고 3,000년 전 보물을 찾아보세요.
- 프로그램 내용
  -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하며 박물관 안팎 6개 미션 장소를 탐험하는 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 AI 학예사 “포인트“의 음성 해설을 들으며 고인돌(청동기)부터 국보 탐리리 5층 석탑(통일신라)까지 3,000년의 시간을 여행
  - 미션 클리어마다 보물상자에서 석탑 유물 조각을 획득하고, 6개의 조각을 모아 5층 석탑 모형을 직접 조립·채색하는 만들기 체험

## 5) 종이나라박물관

- 프로그램명 : 세상을 잇는 ‘빛의 말’ 종이의 질주
- 장소 : 종이나라박물관, 조랑말박물관(서울시 중구)
- 프로그램 소개 : ‘빛의 말’ 프로젝트는 종이접기와 스마트 기술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이다. 종이접기와 전도성 펜을 활용한 나만의 ‘빛의 말’을 만들고 간절한 소망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

의 멋진 ‘빛의 말’ 을 만들고 ‘화합의 벽’에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 6) 코리아나미술관

- 프로그램명 : 모두를 위한 감각 식탁
- 장소 : 코리아나미술관(서울시 강남)
- 프로그램 소개 : ‘작품을 먹는다는 건 어떤 경험일까?’ <모두를 위한 감각 식탁>에서 나만의 레시피로 작품을 조합하고, 직접 맛보는 감각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프로그램 내용
  - 작품의 재료와 형상, 개념을 자신만의 ‘실험 음식 레시피’로 설계해보는 웹 게임(상시 체험)
  - 작품의 재료와 구조를 재해석한 디저트를 함께 먹으며 작품을 다층적으로 경험하는 토크와 움직임 워크숍

## 7) 한국자연사박물관

- 프로그램명 :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자연을 잇고, 삶을 엮다”
- 장소 : 한국자연사박물관(충남 공주시)
- 프로그램 소개 : 자연의 역사와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시를 출발점으로 한 관찰→해석→표현→공유의 과정을 경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자연을 감상에 그치지 않고 창작으로 확장하며, 삶의 기억과 감정을 예술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과정 중심 활동을 통해 노년층 참여자가 부담 없이 전시에 참여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한다.
-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시간
  - 어찌다 만화가 : 전시 표본과 자연을 관찰해 생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콜라주·프로타주 기법으로 캐릭터를 제작한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구성하고 결과물을 전시로 공유한다.
  - 어찌다 도예가 : 암석과 화석을 관찰하며 철화분청사기의 배경을 이해하고, 점토 압흔 및 철화 표현을 활용해 작품을 제작합니다. 완성된 작품은 전시로 공유한다.

## 8) 헬로우뮤지움

- 프로그램명 : 뮤지엄 다이어리
- 장소 : 헬로우뮤지움, 서울숲 커뮤니티센터 (서울시 성동구)
- 프로그램 소개 : 비밀스러운 감정과 이야기를 놀이와 신체활동으로 표현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융복합 예술 프로그램이다.
- 프로그램 내용
  - 비밀일기장 : 어린이\_일기장 만들기 / 보호자\_그림책 마음읽기
  - 서울숲괴물 : 그린스텝과 함께하는 서울숲 통합프로그램
  - 펠트괴물 : 달팽이네트워크와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
  - 비밀소리 : 어린이\_사운드 드로잉 / 보호자\_그림책 마음읽기

뮤지엄×거닐다는 「박물관·미술관 주간」 동안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과 문화 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경험하는 로컬 뮤지엄 나들이 프로그램이다. 2026년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았던 경주와 제주 코스는 유지하면서도, 공주와 서울 코스를 새롭게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 □ ‘뮤지엄×거닐다’, 전국 4개 권역 로컬 뮤지엄 여행… 역사·건축·예술문화 명소를 잇다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과 문화 명소를 연결한 로컬 뮤지엄 여행 프로그램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장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산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각 지역이 지닌 고유의 문화자원을 재발견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여행 경험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지역 박물관·미술관에는 방문객 유입 활성화와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는 서울·공주·경주·제주 4개 지역을 거점으로 총 12회차로 운영되었으며, 회차당 약 2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을 사전 신청으로 모집하였다. 경주에서는 〈경주, 역사로 읽는 도시〉, 제주에서는 〈제주, 뮤지엄 산책 - 제주의 건축을 만나다〉·〈제주, 뮤지엄 산책 - 제주의 뮤지엄을 만나다〉, 서울 성북에서는 〈서울, 조형으로 만나는 한국의 미〉, 공주에서는 〈공주, 웅진백제의 흔적을 따라〉가 각각 운영되었다.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각 지역의 주요 박물관·미술관 및 문화 명소를 깊이 있게 탐방하며, 그 지역만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렸다.

지역	프로그램명 (운영 일자)	주요 코스(해설사)
경북 경주	경주, 역사로 읽는 도시 (5.15, 5.16, 5.29, 5.30)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역사유적지구(월성, 계림숲, 경주향교)→ 월정교 - 최선주 前 국립경주박물관 관장
제주	제주, 뮤지엄 산책 - 제주의 건축을 만나다 (5.22, 5.23)	유동룡미술관(박재연 학예팀장) → 포도호텔 → 방주교회 → 수풍석뮤지엄(관내 별도 해설사)
	제주, 뮤지엄 산책 - 제주의 뮤지엄을 만나다 (5.15, 5.16)	유동룡미술관(박재연 학예팀장) → 본태박물관(관내 별도 해설사) →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양은희 관장)
서울 성북	서울, 조형으로 만나는 한국의 미 (5.19, 5.20)	우리옛들박물관(주연경 팀장) → 한국가구박물관(한부남 팀장) → 해곡최순우기념관(관내 별도 해설사)
충남 공주	공주, 웅진백제의 흔적 을 따라 (5.20, 5.27)	국립공주박물관+충청권광역수장고 → 무령왕릉과 왕릉원 → 공산성 - 윤용혁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 ‘뮤지엄×거닐다’ 프로그램 참여기관 : 유동룡미술관

유동룡미술관(ITAMI JUN MUSEUM)은 건축가 겸 아티스트 이타미 준(유동룡)의 흔적을 따라가며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근원을 탐구했던 아티스트, 자연에 순응하는 야성의 건축과 손의 감각이 살아있는 순수한 조형을 추구했던 건축가 이타미 준. 그의 한국 이름은 유동룡입니다. 제일 교포 건축가로 끝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경계에서 활동했던 유동룡. 그는 치열하게 자신의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고, 나아가 물질과 자연의 본질에 집중하며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제주도에 자리한 유동룡미술관은 유동룡의 딸 유이화가 설계하고 건축한 ‘이타미 준 세계의 완성체’입니다. 연면적 700㎡, 지상 2층 규모의 공간에 1970년부터 2011년까지 유동룡이 남긴 건축 작품과 회화·서예·조각 등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그의 수집품과 저서도 소개합니다. 또한 본질에 집중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젊은 창작자들과 교류합니다.

“건축은 자연과 나 사이의 새로운 세계를 매개하는 무엇”이라 했던 유동룡의 말처럼, 유동룡미술관은 개인의 오리지널리티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자 합니다.

Q.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뮤지엄×거닐다」 제주 코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며 느낀 이번 사업의 의미와 제주 코스만의 특징은 무엇이며, 관람객들이 이번 여정을 통해 어떤 경험과 가치를 얻어가길 바라시나요?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한데 모여 문화예술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행사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기관들과 연결되고, 나아가 폭넓은 참여자분들과 가깝게 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제주에서는 「뮤지엄×거닐다」를 통해 제주의 맥락을 담고 있는 ‘건축’이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으로서 적극 소개되었고, 제주만의 독특한 풍토와 문화를 담아낸 이타미 준의 대표 건축 코스를 통해 제주의 지역성을 온전히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타미 준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건축’을 강조한 것과 같이, 지역과 밀접하게 관계맺은 문화예술과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했던 이타미 준의 ‘오리지널리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나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떠올리고 고민해보는 여정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유동룡미술관 / 박재연 학예팀장

## □ ‘뮤지엄X거닐다’ 프로그램 참여기관 뮤지엄 방문 후기 ‘제주도 문화예술여행’

### 크리에이터 아이고바트(iGoBart)

아이고바트(iGoBart)는 서울에 거주하는 네덜란드인 바트 반 그눅튼(Bart van Genungten)이 운영하는 유튜브 및 SNS 채널입니다. 한국을 누구보다 애정 있게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유명 관광지 너머 서울의 467개 동네를 직접 발로 탐방하는 시리즈 “Welcome to My Dong”을 통해 골목과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서울 명예시민 선정, 2025 서울 인플루언서 어워즈 수상, 2023 한국 방송 비평상 소셜미디어 부문 수상, 북한여행기 『직항은 없다』출판 등 한국과 가장 깊이 연결된 외국인 크리에이터로서, 한국어·영어 이중자막을 통해 국내외 시청자 모두에게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전달합니다.

**Q1. 이번에 방문한 박물관·미술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나 공간은 어디였나요? 그 이유도 함께 알려주세요.**

제가 방문한 박물관·미술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본태박물관(bonte museum)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공간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철학은 건물 자체는 물론, 건축과 주변 자연환경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박물관은 좋은 의미에서 잘 조직된 혼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길을 잃어가며 공간들을 탐험했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명한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역사적 유물과 한국의 전통 공예품들도 함께 소개되고 있었는데,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한국의 민속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박물관이 자리한 위치 자체도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주도의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는 정말 따라올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Q2.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사진으로 담기 좋았던 포인트가 있었다면 어디였나요?**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는 결국 자신의 관심사와 연결되는 모든 장소가 좋은 촬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고, 영상은 제가 사용하는 매체입니다. 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나 숨겨진 이야기를 찾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창작자들에게 놀라운 무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만으로도 훌륭한 배경이 되어주지만, 한 장소를 진정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 담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의 역사, 그것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공간을 형성한 철학과 아이디어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관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촬영 소재가 되곤 합니다. 이번 짧은 일정 동안 본태박물관 외에도 김창열미술관, 이타미 준 뮤지엄, 그리고 이타미 준이 설계한 여러 건축물을 방문했습니다. 각각의 공간은 저마다 아름다웠지만, 저를 가장 매료시킨 것은 건축가들의 삶과 철학, 왜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배경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전시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공간 경험에 훨씬 더 깊은 층위를 더해주었습니다. 장소 그 자체는 하나의 무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 장소를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장소가 촬영하기 좋은 곳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바로 그 이야기에 있습니다.

**Q3. 구독자 · 팔로워분들께 이 박물관 · 미술관을 추천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장소들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이며, 제주를 대표하는 정답 같은 가이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간단히 검색만 해도 제주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 목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비슷한 장소들이 반복해서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모두가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일종의 ‘에코 챔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더 흥미를 느끼는 것은 그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본태박물관은 이미 꽤 유명한 곳이고 그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문한 다른 미술관, 건축물, 그리고 건축 작품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게 아름답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 보려는 호기심이 있다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곳들을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처럼 느껴지지만, 그곳에서 얻는 경험과 기억은 유명한 관광지 못지않게 오래도록 남기 때문입니다.

**Q4. 방문 후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나 작품은 무엇인가요?**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은 본태박물관에서 **꼭두**를 주제로 한 전시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꼭두는 전통적으로 상여 위에 장식되던 작은 목각 인형으로,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동행하는 존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아닌 저에게는 거의 알지 못했던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이었기에, 현대미술관에서 이러한 전통 문화를 접하게 된 것이 매우 신선하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의 인상적인 경험은 **백남준**의 작품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여러 미술관을 통해 이전에도 그의 작업을 접한 적이 있었지만, 본태박물관에서 본 작품 중 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백남준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 아내 역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개척했던 그의 선구적인 접근 방식에 더욱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교회를 방문했던 경험 역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한 이 건축물은 노아의 방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제주의 자연 풍경과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현대 교회 건축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공간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 출신인 저에게 교회를 방문하는 일은 비교적 익숙한 경험이지만, 이처럼 현대적인 성스러운 공간이 역사적인 교회들 못지않은 깊은 울림과 기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Q5. 박물관 · 미술관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관람 방법(꿀팁)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팁은 방문하기 전에 건축가와 건물, 그리고 전시된 작품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둘러보면 때로는 그저 여러 물건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경험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정보만 알고 가더라도 작품과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호기심과 예상치 못한 발견을 위한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종종 걸음을 조금 늦추고, 그 공간과 경험 자체를 천천히 즐길 때 찾아오곤 합니다. 제주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방문한다면,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터 아이고바트(iGoBart)

전국 50개기관 체험프로그램… 소장품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다.

뮤지엄×만나는 박물관·미술관이 소장한 우수한 문화유산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뮤지엄×만나다’는 ‘최초, 그리고 시작’을 주제로 전국 박물관·미술관이 소장한 유물과 작품 속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소장품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를 발굴해 대중의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문화 자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박물관·미술관을 삶 속의 문화 공간으로 재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전국 50개 기관의 대표 소장품 50건을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이를 중심으로 강연·체험·스토리 전시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유물과 작품의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서사와 사회적 맥락을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소장품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더욱 공감하는 문화 체험을 선사하였다.

NO.	지역	기관명	소장품명
1	경기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조영복 초상
2	경기 (이천시)	경기도자미술관	108번뇌
3	경북 (경주시)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	포니1
4	경기 (양평군)	구하우스 미술관	전람회의 그림들
5	제주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은광연세 편액(恩光衍世 扁額)
6	경기 (김포시)	김포다도박물관	휴대용 다기함
7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열하일기 친필초고본 (熱河日記 親筆草稿本)
8	전남 (담양군)	담양우표박물관	우리나라 최초우표(문위우표)
9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
10	대구 (동구)	대구섬유박물관	낙하산지 블라우스
11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金允謙 筆 嶺南紀行畫帖)
12	경기 (성남시)	디자인코리아뮤지엄	박가분(朴家粉)
13	경기 (남양주시)	모란미술관	발자크 기념상
14	서울 (강북구)	박을복자수박물관	국화와 원앙

15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박물관	꽃무늬 꽃엔진
16	서울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이브 58-1
17	경기 (파주시)	세계민속악기박물관	루밥
18	경기 (안산시)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목어
19	경기 (광주시)	영은미술관	하늘과 땅
20	경북 (영천시)	영천역사박물관	세계최초일간신문 『민간인쇄조보』
21	인천 (남동구)	영훈뮤지엄	해주백자청화추상문단지
22	경기 (이천시)	이천시립박물관	청자양각연관문접시 (靑磁陽刻連瓣文楨匙)
23	경기 (이천시)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수고무강첩(壽考無疆帖)
24	경기 (양평군)	이함미술관	뷔페, 노바디즈 퍼펙트
25	전북 (전주시)	전주전통술박물관	양주○법(釀酒○法)
26	충북 (음성군)	철박물관	전기로 556
27	충북 (청주시)	청주시한국공예관	안계(眼界)
28	서울 (종로구)	춘원당한의약박물관	제1회 한의사국가시험 합격증
29	경기 (광명시)	충현박물관	광명 번역 징비록 (光明 翻譯 懲毖錄)
30	경기 (남양주시)	프라움악기박물관	브로드우드 그랜드 포르테 피아노
31	경기 (용인시)	한국등잔박물관	조족등
32	전남 (강진군)	한국민화뮤지엄	삼국지연의도(三國志演義圖)
33	충남 (공주시)	한국자연사박물관	학봉장군미라
34	경기 (파주시)	한길책박물관	초서 저작집
35	대전 (대덕구)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평양성탈환도(平壤城奪還圖)
36	충북 (음성군)	한독의약박물관	대한약전 초판본
37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박물관	아날로그 전자계산기 3호기
38	서울 (성북구)	혜곡최순우기념관	최순우 옛집
39	경북 (경산시)	경산시립박물관	얼굴모양토기

40	전남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청자 ‘大平’ 명양각해석류화문와
41	강원 (속초시)	국립산악박물관	'77 한국 에베레스트 자료
42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 한센병박물관	청진기
43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바다의 신비
44	서울 (중구)	농협 농업박물관	강진 용소농기
45	대전 (유성구)	대전시립박물관	나신결 한글편지
46	서울 (종로구)	목인박물관 목석원	남사당패
47	부산 (동래구)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큰이빨부리고래 골격 표본
48	경기 (양주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동물가족
49	경기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영락장식
50	경남 (함안군)	함안박물관	별자리 덮개돌(천문개석)

□ 메인 포스터 2종



□ 주요 프로그램 포스터 3종



# □ 「뮤지엄 × 즐기다」 참여관 별 포스터

○ 전시(총8개관)

<p>교동 미술관</p>	<p>김만덕기념관</p>	<p>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p>	<p>모란미술관</p>
<p>사비나미술관</p>	<p>소다미술관</p>	<p>온양민속박물관</p>	<p>한양대학교박물관</p>

NO.	기관명	기간	전시명
1	교동미술관	5.5 ~ 5.31	유연한 공간 : 공동의 숨 Flexible Space : Breathing Together
2	김만덕기념관 X(유)켈파트	5.1 ~ 8.30	물길을 따라, 사람길을 잇다
3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5.12 ~ 8.21	상식이 된 파격_그때는 힙스터 : 지금은 폰대
4	모란미술관	4.14 ~ 7.26	침묵과 빛 사이 Between Silence & Light
5	사비나미술관	5.1 ~ 5.31	Still Breathing: 아직 숨 쉬고 있다
6	소다미술관	5.6 ~ 7.19	모두의 성장소설 : The coming of us
7	온양민속박물관	5.2 ~ 5.31	박물관 안 수선집 IV '헌물과선물'
8	한양대학교박물관	5.6 ~ 7.18	물건 그릇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쓰임, 폐기, 그리고 다시 불려진 것들